

2015학년도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5년 1월 12일 (월), 11:00 ~ 12:00

■ 회의장소 : 아산캠퍼스 본관 2층 교무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참석위원	8명	정차근 기획처장, 채희정 교무처장, 채광빈 재무처장 양진욱 기획부처장, 류지혁 총학생회장, 강창민 공과대학학생회장, 허룡 사회과학대학학생회장, 윤권화 공인회계사
불참위원	1명	김태규 동문(농협 지점장)
배석자	3명	곽경대 기획예산팀장(간사), 채동우 과장, 전병훈 주임(기획예산팀)

■ 안건

1.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2.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 심의

■ 회의내용

1.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무 및 의무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후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함.
2. 정차근 기획처장을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곽경대 기획예산팀장을 간사로 위촉함.
3.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안에 대하여 간사가 배포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함.
4. 우리대학은 최근 5년간 등록금 동결 및 인하한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대학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천안·아산지역 8개 대학 중 평균등록금으로는 5위이며, 자연과학계열 및 보건의료계열 최저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음을 설명함.

채광빈 - 1 - 류지혁

5. 외부적으로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등록금상한제도의 적용에 따라 최근 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의 1.5배인 2.4%가 2015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을 임을 안내하고, 장학금 및 교원확보율 등 정부 대학평가를 대비한 교육여건 개선과 물가상승전망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세입부족액이 발생했음을 설명함.
6. 2015학년도 등록금을 2%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소모적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하면 기금인출은 억제하여 수입 범위내에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중임을 설명함.
7. 서울지역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알고 있으며, 대학 재정 수입의 한계와 최근 등록금 동결 및 인하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었기에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최근 학내적인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학생 측의 의견에 대해 학생자치기구에서 한 주간 충분한 논의 후 차기 회의에서 등록금 책정 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함.
7. 당초 편성된 장학금이 모두 집행되고 있는지, 또한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장학혜택과 장학금 홍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학생 측의 의견에 장학금은 최초 편성된 금액보다 높게 집행되고 있으며,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방식이 매우 다양함을 설명하였으며,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되고 있음을 안내함.
8. 등록금 인상이 어렵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재정운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전기절약 캠페인, 재학률 향상 등을 추진해 보기로 함.
9. 2018년부터 급격한 학생자원 감소에 따라 정부에서 구조개혁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교원확보를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학생 측의 설명 요구에 교원확보율은 학생 20명 또는 25명당 교원1인을 비례적으로 갖추도록 되어있음을 설명하고, 대학 평가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학부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학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계됨을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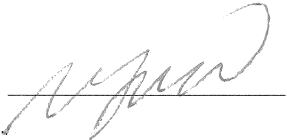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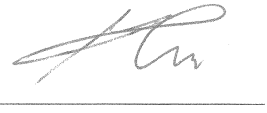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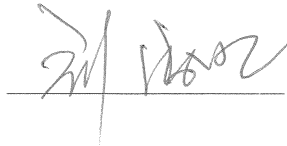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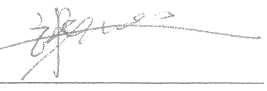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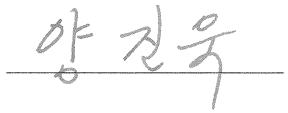
최재민

제라노

류지혁

10. 최근 수년간 교육당국의 반값등록금 등 정책기조에 따라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의 결정을 해 왔으며, 이 상황이 누적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증대되었을 것으로 예상함. 올해도 세출 세입규모를 비교하여 등록금을 산정하기 보다는 타 대학 동향과 교육당국의 의견을 살피 대학본부와 학생측에서 적정하게 조율하여 결론지어야 할 것으로 윤권화 의원이 의견을 제시함.
11. 2차 회의는 1월 16일 16:00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폐회함.

2014년 1월 12일 (월)

위원장 정차근		위원 류지혁	
위원 채희정		위원 강창민	
위원 채광빈		위원 허 룡	
위원 양진욱		위원 윤권화	